

■ 교육

대학 입학 때 반드시 전공을 정해야 할까?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미국 대학에 지원, 입학할 수 있을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전공을 정하고 지원하지만 undecided로 지원하는 학생도 많다. 물론 전공 선택을 꼭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1-2학년 동안은 전공 탐색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입학할 때 쓰고 들어간 전공과 3학년 때 전공이 달라지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미국 대학생의 약 70%가 1학년 때 정한 전공을 이후 바꾼다는 통계도 있다. 명문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인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의 경우 전체 학생의 80%가 전공을 바꾼다는 통계가 있다.

어떤 학생들은 전공을 2-3번 바꾸기도 한다. 이럴 경우 필수 이수 학점 부족으로 4년 내 졸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확고한 전공을 찾는 것이 맞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기 전 충분히 숙고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전공 선택에 관한 조언을 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구하는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난 가운데 11%가 고교 카운슬러, 28%가 대학의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듣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조언이 전공 선택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 대학들은 1-2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섭렵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것은 교양을 넓히고 지식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렇게 교양과목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있어야 한다. 방향도 없이 이것저것 들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명확하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전공 선택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편견도 매우 많다. 그 중에 하나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전공은 취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STEM 전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등 STEM 관련 전공은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공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 STEM 전공 가운데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 오히려 STEM 전공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STEM으로 전공을 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신의 적성에도 맞아야 하지만 시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전공이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어떤 전공과 향후 직업을 택해야 할지 미리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 능력과 관심 분야,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를 해 보면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 걷기 좋은 곳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총 300ha의 면적에 30~45년생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인공림이 200ha 자연림이 100ha이다. 삼나무와 곰솔 조림지에 조성된 산책로와 그늘 공간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한 여름에도 시원한 한기를 느낄 수 있다.

휴양림 내에는 산책로,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목공예 체험장, 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끼리 오붓한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산책로는 비교적 완만하고 경사도가 낮고 계단이 없이 시설되어 약자나 어린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하면 휠체어 장애우도 다닐 수 있다.

기생화산인 절물오름은 해발 697m이며,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면 충분

히 왕복이 가능하다. 절물오름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어 말발굽형 분화구를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이면 동쪽으로 성산 일출봉이, 서쪽으로는 제주에서 제일 큰 하천인 무수천이, 북쪽으로는 제주시가 한눈에 보인다.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약수터는 조선시대에 가뭄이 들어 동네 우물이 모두 말랐을 때에도 주민들 식수로 이용했을 정도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휴양림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휴양림 주종인 삼나무 이외에 소나무, 울벚나무, 산팽나무 등의 나무와 더덕, 드릅 등의 나물 종류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큰오색딱따구리, 까마귀, 휘파람새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운이 좋으면 노루가 풀을 뜯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소: 제주시 봉개동 산78-1
▶ 전화: 064-728-1510



▲ 절물자연휴양림,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